국내 기관 은행주 순매수 확대 중

은행 Weekly | 2026.3.3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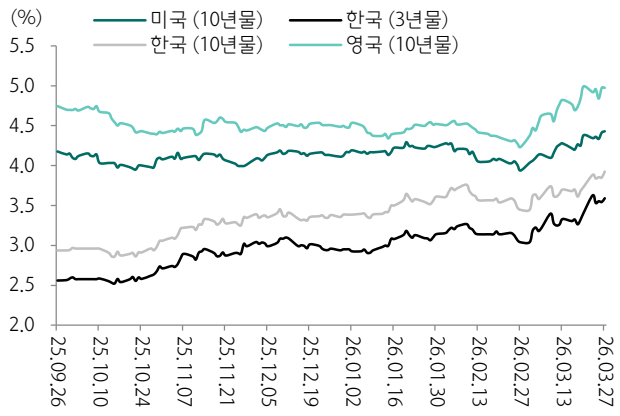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 홍콩 ELS, LTV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의 자본적립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은행은 과징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약 7배를 RWA로 10년간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출시 이를 3년으로 단축해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 생산적 금융 유도
-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를 계속 운영리스크로 반영해온 은행들에 반영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DLF 판매금액이 많았던 우리·하나은행과 라임펀드 금액이 많은 우리·신한·하나은행의 운영리스크 부담 완화 예상
-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홍콩 ELS와 같은 사태 재발시 일체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 다만 금소법 초기 시행과 은행권 자율배상 노력을 언급해 금융위에 '감경 명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
- 신한금융은 약 9.9조원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2026년 결산 이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7.5조원과 7.4조원, iM금융도 2,900억원 규모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섬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3월 27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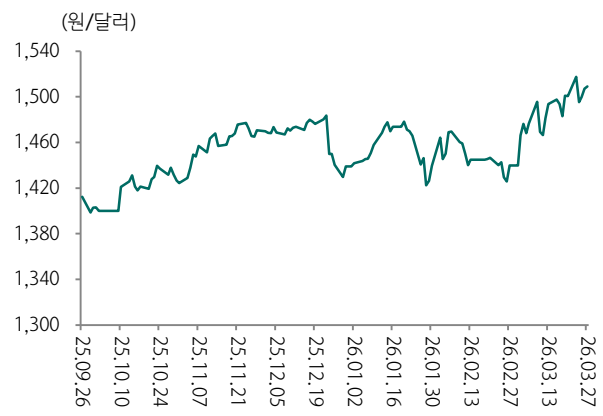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Weekly Net Buy (십억원)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44	8.7	16.5		4,482,729.5	-5.9	-8.9	31.7	29.1	-652.5	-367.7	-14,235.2	13,186.9
은행	0.67	7.84	8.81	0.63	201,548.5	-2.4	-10.2	19.3	19.6	336.9	53.6	-412.5	70.9
KB 금융	0.84	9.11	9.62	0.75	56,747.8	-1.9	-8.7	22.2	22.1	151.5	20.7	-162.3	9.9
신한지주	0.72	8.94	9.14	0.65	44,380.2	-4.5	-7.3	21.7	21.6	60.3	1.3	-66.3	5.5
우리금융	0.62	7.40	8.77	0.54	24,665.0	-0.9	-14.1	18.7	20.0	29.9	7.5	-36.4	6.5
하나금융	0.61	7.11	9.06	0.63	30,727.2	-2.5	-12.5	17.7	17.3	41.5	4.8	-61.6	19.5
기업은행	0.50	6.75	7.49	0.54	18,779.4	-2.3	-10.6	11.1	12.4	31.8	15.6	-64.6	32.2
BNK 금융	0.50	6.66	7.79	0.54	5,796.9	-0.9	-14.3	16.8	17.7	3.1	-1.2	-4.4	1.7
iM 금융	0.42	5.81	7.45	0.47	2,838.2	2.5	-13.4	13.9	13.6	14.3	-0.6	-13.2	-3.6
JB 금융	0.86	7.84	11.78	1.00	5,854.7	0.5	-8.9	19.4	21.2	4.5	5.6	-3.7	-0.8
카카오뱅크	1.65	20.28	8.37	0.73	11,759.1	-1.8	-13.4	14.1	14.1	-4.1	0.1	8.8	-4.4
삼성카드	0.70	9.65	7.34	2.02	6,372.2	-7.9	-14.1	-1.8	-1.6	-3.5	-4.8	-10.5	13.2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4% 하락했지만 KOSPI 하락률 5.9%에 비해서는 3.5%p 초과상승. 트럼프의 입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 분위기로 흐르고, 구글의 터보퀀텀 쇼크로 기존 주도주였던 IT업종의 주가 조정 폭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은행주의 경우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상대적 관점에서의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 홍콩 ELS 감경과 관련한 금융위 결론이 아직 나고 있지 않지만 감경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금융당국이 과징금 관련 운영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점도 은행주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 중. 전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한때 50%를 웃돌면서 미국 국채수익률 고공행진 중.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3%로 한주간 4bp 추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91%로 전전주 수준을 유지. 국내 국채금리는 큰폭 추가 상승.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92%로 한주간 18bp 상승했으며, 3년물은 3.58%로 17bp 상승했음. 한편 원/달러 환율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의 대규모 KOSPI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1,510원선까지 넘어선 가운데 1,511.4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6.7원 추가 상승.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KOSPI를 약 14.2조원 대량 순매도했고 은행주도 약 4,13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시총 비중 대비 매도 강도는 크지 않았던 편.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6,520억원 순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은행주는 3,370억원을 순매수. 증권 1,900억원 순매수 외에도 연기금 540억원, 기타금융 740억원, 기타법인 420억원 등 고르게 순매수 중
- 전주 특징주는 iM금융. 주가가 한주간 2.5% 상승해 은행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국내 기관 매수세가 컸던 점이 다소 특징적인 요인. 이는 펀더멘털 이슈라기 보다는 주초 PBR이 한때 0.4배를 하회하는 등 은행주 중 절대 multiple이 매우 낮아졌던 측면이 기관 매수세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 반면 신한지주는 4.5% 하락해 대형 은행지주사 중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삼성카드는 7.9%나 하락. 삼성카드는 배당락 발생에 따른 하락 요인이 있긴 했지만 2025년 결산 DPS보다도 더 크게 하락했음. 30일에는 기업은행 배당락 발생 예정(결산 DPS 1,048원). 따라서 기업은행도 금주에 주가 약세가 불가피할 듯
- 은행들의 배당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1분기 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말이 아닌 5월초일 것으로 전망. 은행별 1분기 예상 DPS는 KB금융 1,090원, 신한지주 740원, 우리금융 230원, 하나금융 1,035원, BNK금융 150원, JB금융 300원으로 전망. 이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수치이며, J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YoY 30%와 88% 증가 예상. JB금융은 중장기 균등배당 지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YoY 증가율이 꽤 높은 편. 연간 총배당 증가율이 2.5%로 그다지 높지 않은 KB금융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커지면서 1분기 DPS 증가 폭이 YoY 20%에 달하고 있음. 물론 은행주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배당수익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절대금액 측면에서 그만큼 배당매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
-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던 상황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예 사라진 상황이며, 최근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 이를 반영해 국채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 은행주는 밸류업 이전인 2023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시중금리 사이클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특히 장단기금리차와 은행주가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이 즉각적인 NIM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top-line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채권평가손 발생 가능성 크지만 현재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투자주식 관련익이 이를 상당부분 상쇄), 반면 금리 상승이 자산건전성을 자극해 대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현실화된다고 해도 상당기간의 시차가 존재.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상승이 은행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물론 유가가 폭등하면서 기업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한층 더 커질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 시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 다만 아직까지는 건전성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상황으로 추정.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금리와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업종간 순환매도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과 편안함 측면에서 은행주의 매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00,000원),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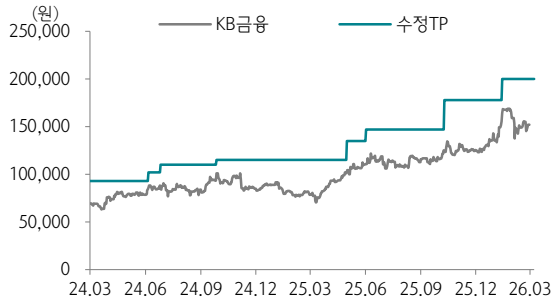
- KB금융의 외국인 비중은 76.2%로 외국인 매도로 인해 주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고, ELS 과징금 결론 지연 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지만 곧 결론 예상.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중확대 계속 유효
- 신한지주는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9.9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은행 중 가장 큰 규모. 기타법인 오버행도 일단락된 것으로 추정. 지난주 약세로 가격 매력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며 4월말 실적발표시 발표할 밸류업 업그레이드 버전 등도 기대

Global Peer Table (2026년 3월 27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44	8.7	16.5		4,482,729.5	-5.9	-8.9	31.7	29.1
은행	0.67	7.8	8.8	0.63	201,548.5	-2.4	-10.2	19.3	19.6
KB금융	0.84	9.1	9.6	0.75	56,747.8	-1.9	-8.7	22.2	22.1
신한지주	0.72	8.9	9.1	0.65	44,380.2	-4.5	-7.3	21.7	21.6
우리금융	0.62	7.4	8.8	0.54	24,665.0	-0.9	-14.1	18.7	20.0
하나금융	0.61	7.1	9.1	0.63	30,727.2	-2.5	-12.5	17.7	17.3
기업은행	0.50	6.8	7.5	0.54	18,779.4	-2.3	-10.6	11.1	12.4
BNK금융	0.50	6.7	7.8	0.54	5,796.9	-0.9	-14.3	16.8	17.7
iM금융	0.42	5.8	7.4	0.47	2,838.2	2.5	-13.4	13.9	13.6
JB금융	0.86	7.8	11.8	1.00	5,854.7	0.5	-8.9	19.4	21.2
카카오뱅크	1.65	20.3	8.4	0.73	11,759.1	-1.8	-13.4	14.1	14.1
삼성카드	0.70	9.7	7.3	2.02	6,372.2	-7.9	-14.1	-1.8	-1.6
미국									
S&P 500	4.34	19.7	20.6	4.89	56,820.8	-2.1	-7.3	-7.8	-7.0
은행	1.39	11.5	12.0	1.06	1,908.2	-0.8	-5.6	-13.1	-11.7
Wells Fargo	1.36	12.4	12.7	1.03	238.2	-0.5	-5.2	-18.6	-17.2
JPM	2.10	13.2	16.4	1.28	762.8	-1.3	-5.8	-13.4	-12.2
CITI	0.91	10.4	9.2	0.69	187.8	-2.0	-2.6	-10.4	-8.0
BOA	1.16	10.8	11.3	0.95	335.6	-0.4	-5.2	-15.9	-14.6
US Bancorp	1.25	10.1	12.8	1.16	78.9	-0.8	-7.0	-6.6	-4.7
PNC	1.35	10.9	12.8	1.24	81.6	0.3	-4.7	-4.6	-3.0
BB&T	0.89	10.0	9.2	1.04	55.3	0.8	-9.7	-11.1	-9.5
중국									
상해A주지수	1.44	15.5	9.4	1.38	62,139.6	-1.1	-6.0	-1.1	-1.4
은행	0.65	7.1	9.3	0.70	11,821.3	-0.8	5.1	-3.6	-5.5
공상은행	0.63	7.2	8.9	0.67	2,502.0	-1.3	6.9	-5.2	-6.7
건설은행	0.67	7.2	9.4	0.75	1,915.5	0.4	9.7	3.6	1.5
농업은행	0.78	8.0	9.5	0.66	2,214.6	-4.1	1.3	-13.7	-15.6
중국은행	0.63	7.5	8.6	0.62	1,687.5	1.1	5.5	-0.7	-2.8
교통은행	0.50	6.4	7.8	0.60	581.7	-0.4	5.0	-4.7	-5.1
초상은행	0.81	6.5	12.5	1.13	1,011.9	-0.8	1.8	-2.9	-6.3
일본									
NIKKEI	2.45	22.6	10.9	3.38	916,482.1	0.0	-9.3	5.4	6.0
은행	1.29	13.5	9.5	0.44	113,070.0	2.4	-9.3	11.6	11.4
Mitsubishi UHF	1.44	13.9	10.7	0.63	32,220.8	1.1	-8.5	9.2	8.9
Sumitomo Mitsui Financial	1.29	12.7	10.7	0.62	20,079.1	1.7	-12.5	2.8	4.1
Mizuho	1.43	13.5	10.9	0.42	15,882.7	3.7	-10.8	12.6	11.9
Sumitomo Mitsui Trust	1.09	12.0	9.3	0.43	3,573.0	1.5	-6.7	7.8	7.0
유럽									
MSCI Europe	2.15	14.9	13.9	1.72	13,991.7	0.6	-8.8	-1.6	-2.8
은행	1.23	9.3	13.3	0.73	1,707.5	1.7	-10.7	-5.9	-7.9
HSBC	1.46	9.7	15.1	0.84	206.1	4.9	-11.5	5.0	2.2
Santander	1.30	9.4	13.4	0.78	138.1	1.7	-12.9	-5.9	-6.6
BNP Paribas	0.73	7.0	10.8	0.46	89.3	-1.3	-15.1	0.7	0.4
Credit Agricole	0.65	6.8	9.9	0.27	48.0	-0.7	-15.5	-9.5	-9.6
Deutsche	0.68	7.3	9.7	0.47	47.2	0.9	-17.5	-25.8	-25.3
Unicredit	1.34	8.3	16.4	1.24	90.8	1.0	-16.8	-13.9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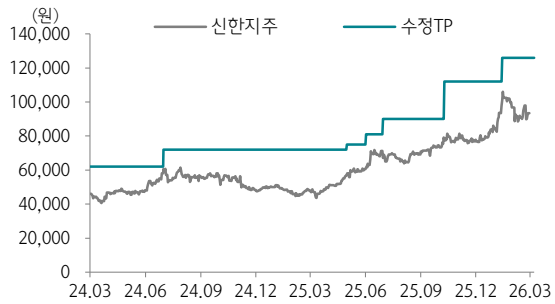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00,00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신한지주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126,000		
25.11.7	BUY	112,000	-28.27%	-12.59%
25.7.28	BUY	90,000	-22.66%	-12.00%
25.6.30	BUY	81,000	-15.96%	-11.36%
25.5.29	BUY	75,000	-20.53%	-18.67%
24.7.29	BUY	72,000	-27.80%	-14.72%
24.3.21	BUY	62,000	-23.07%	-6.45%
24.2.5	BUY	54,000	-16.81%	-4.6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3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3월 27일